

민주전대 돈봉투 파동 광주·전남 정가 ‘축각’



국민에게 희망을,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술렁이고 있다.

이달 말께는 이낙연계 싱크탱크 조직의 첫 지방 심포지엄이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열릴

공정한 수사를,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에게는 조기 귀국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민주당의원 10여 명 등 정·재계 인사 40여 명에게 9400만원의 불법자금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액수와 배경 등을 떠나 돈거래 의혹만 만큼 최악의 경우 공천 배제까지도 갈 수 있다”면서도 “아직 현금을 주고 받은 직접 증거는 없고, 정황 증거만 있는 만큼 냉정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친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첫 지방심포지엄을 광주에서 열 예정이다. 당내 소장계파로 ‘미스터 쓴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300만원 돈봉투’에 광주·전남 의원 3~4명 연루 의혹 “국면 전환용·프레임 정치” 비판 속 녹취록 파장 주목 친이낙연계 ‘연대와 공생’ 광주서 첫 지방 심포지엄 예정

예정되어서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선 3~4명의 국회의원이 ‘300만원 돈봉투’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대부분 당시 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다. 이를 두고 ‘지지층에게 굳이 돈을 뿌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우군관리용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뒤섞여 나오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선 “진일 굴욕외교와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 “부패정당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하면서도 관련자들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감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뒤 수사기관에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이 전 대표의 6월 영구귀국을 앞두고 이낙연계, 나아가 비이재명계 세력결집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일시 귀국해 장인상을 치른 뒤 이개호 의원 등 ‘친낙계’, ‘연대와 공생’ 소속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고, 18일께 출국할 예정이다.

만찬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문상온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집필중인 외교서적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눴고, 이후 돈봉투 파동에 대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역 정가에는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을 모집하느라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도전장은 낸 신에,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중진들 사이에 분주한 상황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지방선거 이후 정치 무관심과 실망감이 심화된 데다 돈봉투 의혹, 계파 갈등 등 뒤흔들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권리당원 모집 열기도 예년같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푸르른 다원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드는 절기 곡우(穀雨)를 사흘 앞둔 17일 오전 전남 보성군 한 다원에서 보성군 직원들이 햇차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곡우 전 수확한 햇차는 우전차(雨前茶)라 칭하며 햇차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여긴다. 여린 찻잎으로 만들어 은은하고 순한 맛이 일품이다.

전남도, 고병원성 AI 차단 비상 대응...21일까지 일제검사

오리농장 207곳 일제검사 추진·집중 소독·방역점검 강화

전남도는 영암과 장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4일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도축 출하를 위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전남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도 현장지원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 통제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전체 가금농장 50농가는 정밀검사를 했다.

발생 농장 사육 가금류 2만9000마리는 신속하게 살처분했으며, 도내 전체 오리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해 16일 오전 11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집중 소독을 했다.

오는 21일까지 도내 전체 오리농장 207농가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또 도내 전 지역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 통제와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 등 행정명령 8건과 가금농장 방역수칙 공고 7건을 시행하고, 방역지역 육용오리에 대해 계열사를 통해 3~5일 조기 출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30대 이하 46만명 ‘빚내서 빚갚는다’...연체액 1년 새 25% ↑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취약계층 10명 중 4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취약계층 126만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46만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한 가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가계대출 연체액도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0대 이하 0.5%, 40~50대 0.6%, 60대 이상 0.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각각 0.1%포인트씩 상승했다. 특히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

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1%로 1년 전 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연체액은 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30대 이하 다중채무자가 빌린 대출잔액은 157조4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이슬기자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